



전기캘린더

페루 발전소-가스전 연계 사업추진

페루는 가스전과 발전소를 연계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Maple Gas Corp를 비롯한 6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총 2억5천만달러를 투입, 천연가스전 개발과 발전사업을 연계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했다.

동사업은 페루 중부의 Aguaytia 가스전 개발과 동 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 등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력부문은 총 155MW급 가스발전소 및 430Km의 송전선건설로 구성되고 송전선은 향후 영구적으로 Maple 컨소시엄이 소유하며 수도 리마르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Aguaytia 가스전은 총 3천억cf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생산된 가스의 70%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LPG 등 석유제품의 제조연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Maple 컨소시엄은 향후 40년동안 동 가스전의 개발권을 가지며 생산된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같은 기간동안 보유하게 되는데 이미 발전소 및 가스전개발이 진행중인 상태로써 '9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이 시작된다.

日本 日本重工業, 리사이클 發電사업 진출

日本重化學工業은 폐가전과 폐자동차를 원료로 한 슈레더 더스트 리사이클발전사업에 진출키로 했다. 페로알로이주력공장인 다카오카사업소내에 燒却

爐 발전설비등으로 구성된 플랜트를 가까운 시일 건설에 착수, '97년 4월 운전 개시를 목표로하고 있다.

플랜트의 처리능력은 燒却爐가 1日 100톤, 발전력은 2천250킬로와트를 예정하고 있다. 다카오카 사업소의 조업이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타사용으로 플랜트의 외판도 취급할 예정이다.

世界 GEC 알스톰·프라마톰 합병

GEC 알스톰과 프라마톰이 합병된다. 프랑스 정부와 알스톰사는 영국·프랑스 합작 대형 중전기 메이커인 GEC 알스톰과 세계 최대의 원자로 메이커인 프라마톰 합병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 발전설비社들에게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사의 이번 합병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과 일본의 발전설비社들과의 수주 우위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합병후 양사는 원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합병은 처음 GEC 알스톰이 母회사인 영국 GEC와 프랑스 알카텔알스톰이 프랑스 정부에 제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새회사가 원자력정책에 대해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의 뜻을 표명, 양사는 연말까지 합병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연간 매출고는 약 13조 원, 종업원 약 9만명의 대형 중전 및 발전설비업체로 부상케 된다.

日本 日本가이시, 中서 超高压송전碍子 생산

일본가이시는 이토추상사 및 중국의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12월을 목표로 중국 하북성에 초고압송전용 애자를 생산할 회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98년 10월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 대폭적인 전력설비의 증강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진출키로 한 것이다.

일본 가이시는 미국·유럽(벨기에)·인도네시아에 이어 네번째 해외공장을 두게 된 것인데 중국 공장은 동남아·중동시장에의 생산거점으로 할 계획이다.

합작회사 'NGK 唐山電·유한공사'는 하북성唐山市 高新기술개발구내에 설립키로 했다. 공장은 '97년 3월에 착공, '98년 10월부터 초고압용懸垂碍子の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ADB, 전력분야 원조

'89년 이래 對방글라데시 전력분야 원조를 중단했던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최근 원조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ADB는 이전까지 방글라데시의 발전소 건설, 송·배전시설 확충 등 전력분야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전력 생산 및 공급 담당부서인 전력청(PDB)의 기술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생산전력의 중간 손실인 시스템 손실이 40%를 넘어서자 이 은행은 대 방글라데시 전력분야 원조가 방글라데시의 전력분야 발전을 위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방글라데시가 시스템 손실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일 때까지 원조키로 결정했었다.

日本 大同特殊鋼, 電氣車모터용 磁石개발

일본의 大同特殊鋼은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을 개발했다. 자력과 내구성등의 주요 성능에 대해선

실수요자의 요구에 거의 가까운 수준까지 실현한 것으로 앞으로는 코스트다운과 양산화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21세기에 걸쳐 보급과 대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동사는 이 성장분야의 상품을 재빨리 개발함으로써 라이벌메이커에 격차를 뚫고 동시에 실수요자인 전기업체의 해외이전으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국내자석의 매출을 커버할 계획이다. 동사에 의하면 전기자동차용으로 연구하고 있는 자석은 네오딤본드자석의 일종이다.

프랑스 신세대 N4형 시대 개막 佛쇼즈 B1호기 송전 개시

프랑스의 신세대 발전용 원자로 제1호기가 유럽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계통에 병입된 쇼즈 원전 B1호기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145만kW급의 N4형 원자로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이 원전의 B1, B2호기는 발전량의 25%를 벨기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EDF사와 이 원전 건설자금의 4분의 1을 투자한 벨기에 전력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日本 都賣電力 입찰 경쟁률 4배

일본 東京電力등 6개 전력회사가 금년도부터 시작한 도매전력입찰의 경쟁률이 4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모집을 마감한 中部電力은 모집 규모 20만kW에 대해 東線, 東洋紡織 등 총 규모 1백 15만3천kW를 응모했다.

이에 따라서 6개 전력회사 합계 모집 규모 2백 65만5천kW에 대해 응모는 합계 1천81만3천kW에 달해 전기사업 아닌 다른 기업의 전기사업에

대한 강한 참여의식을 입증했다.

中國 전력개발에 대규모 외자유치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전력부문에 20억달러의 외국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력부 차관이 밝혔다. 중국은 세기말까지 전력부문 개발에 8,600억 원(1천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은 9차 5개년계획기간중 다음 세기까지 전력시설용량을 2억9천만kW, 연간 전력생산량은 1조4천억k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400만kW 용량의 발전 시설을 늘려야 한다.

고위당국자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의 20%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여타 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력부문 공동 개발에 외국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에 따른 이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금 회수문제에 관한 한 일정한 실링이 없으며 그것은 실제 조건에 따라 양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실무 담당자가 밝혔다. 중국은 2010년까지는 발전시설용량을 5억 5천만kW로 확대할 계획이다.

日本 太陽電線, 中서 USB케이블 量産

일본의 太陽電線은 내년 4월부터 중국에서 퍼스컴과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의 USB(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대응하는 커넥터 부착 케이블의 본격 생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사가 출자한 광동성 東莞市 현지 법인 '東莞白馬電線'에서 월간 10만개의 양산에 들어가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아시아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초년도에는 2억5천만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는 내년 4월부터 USB대응 퍼스컴과 프린

터등이 국내외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豊岡공장에서 샘플생산을 개시, 미 인텔사에 공급하는 등 양산을 위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 37개 품목 관세 인하

핀란드정부는 관세청 지침을 통해 10년간 관세 인하 유예기간 적용을 받던 37개 품목에 대해 '97년 1월 1일부터 EU 공통관세를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편 전기기기 부분을 보면 전동기(HS·8501:51/52/5393)는 종전 관세율('96년 적용) 12.8%에서 신관세율(EU세율) 8.1%로 인하됐다.

日本 저항기업체, 하이파워·高電壓用 주력

일본 저항기업체들이 하이파워 및 고전압용으로 사용되는 대형특수저항기의 사업확대에 착수했다. 전자기기용은 예외없이 칩저항기·전원용저항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수확대를 위해 대형장치, 중전기계통 분야에 대한 영업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수요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치밀한 영업전략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베트남 민자발전 관련제도 정비

베트남정부는 입찰절차의 표준화, 투자보수를 상향조정 등 민자발전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전력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OT 방식에 의한 민자발전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민자발전소의 투자보수율을 사안에 따라 16%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발전이 특히 전력공급의 애로를 겪고있는 알루미늄산업의 생산증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투자보수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베트남정부는 현재 각 지방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BOT 방식의 민자발전소 입찰절차를 단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규정을 공포했다.

이와같은 표준화 규정을 통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발전소 건설, 기타 BOT 방식의 프로젝트 입찰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계획이다.

민자발전소 입찰표준화 규정에 의하면 자문계약, 장비계약, 건설계약은 모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日本 松下, 美·東南亞에 모터技術硏 分室

일본의 松下電器産業은 모터사업그룹인 G & G (글로벌 앤드 그룹) 경영의 일환으로 '97년에 미국과 동남아에 모터기술연구소의 해외분실을 설치키로 했다. 해외거점의 증가에 맞춰 해외의 인재도 채용할 예정이다. 모터사업그룹은 산업기기모터·가전전장모터·정보기기모터등 3개 사업부와 연구소를 핵심으로 해외에서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미국·스페인 등에 생산거점을 갖는다. 최근에는 AV(음향 영상)기기, CD-ROM용 모터를 담당하는 정보기기모터가 세트메이커의 해외이전과 함께 매년 해외생산비율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의 연구거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獨逸 지멘스, 인도네시아로부터 40만 회선의 전화시스템 수주

독일의 지멘스社는 인도네시아로부터 40만 회선의 전화시스템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지역전화망 운영을 인수하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인 PT BSI가 발주했다. 이번 안건의 수주액은

5억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신 자유화의 과정에 있으며,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중 5개 지역의 지역전화망의 정부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日本 금속 再자원화 성형모터 개발

일본의 松下電氣産業이 본체 成形 재료 중에 들어 있는 금속류를 손쉽게 재자원화할 수 있는 성형 모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성형 모터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성형 재료와 특수 에나멜을 이용한 에나멜 전선으로 성형 모터를 구성, 모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재료 중의 금속을 거의 100% 재활용할 수 있다.

이 성형 재료는 화학처리를 거쳐 맨손으로 모터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에나멜 전선은 화학적 처리와 열처리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코일을 절단해 철과 동을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다.

松下電氣産業은 앞으로 간이 플랜트를 통한 검증을 거쳐 회수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며 내년을 목표로 10~20W 가전제품과 공기정화기용모터의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천연가스 활용한 화력발전소 추진

지난해 적절량 부족과 올 여름의 강우량 부족으로 최근 전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력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노르웨이는 산악지대가 많고 및 피요르드 등 수력자원이 풍부해 북해지역에서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를 건설하지 않고 오로지 수력발전에만 의존해 왔다.

日本 후루카와전공, 해외 자회사의 光관련
부문 증강

일본의 후루카와전공은 세계적으로 光관련 제품의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해외자회사의 光관련 제품 설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光관련 부품 메이커인 캐나다의 JDS 파이텔社는 제조능력 증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브라질의 FISA社도 光화이버 거점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루카와전공의 光관련 부문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光화이버 케이블, 光관련 제품 등은 고도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의해 현재 공급부족감이 선명해지고 있다.

中國 발전소건설 합작선 물색

中國 黑龍江省 수도 하얼빈市の 리민 경제기술 개발구역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를 찾고 있다.

총 투자액 2,270만달러 중 중국측에서 공장부지, 부지조성작업, 지원시설 등 570만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외국투자자는 발전소장비와 관리 및 조정장치 등의 시설 및 현금 1,700만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24메가와트급의 이 발전소는 원료의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연간 1억2천만원 상당의 전력생산을 통해 2,500만원의 총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금은 8년내에 회수될 전망이다.

日本 松下, 電氣자동차용 모터사업 참여

일본의 松下電氣産業은 전기자동차(EV)용 모

터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97년도중 월간 100대 규모의 테스트생산을 개시, 국내 복수의 자동차메이커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EV용 모터는 자동차메이커 뿐만 아니라 중전메이커각사에서도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松下는 자동차메이커의 동향에 맞춰 본격 생산의 시기와 생산거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사의 EV용 모터는 모터기술연구소가 중심으로 4, 5년 전부터 신규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개시했다.

美國 美전력업계 해외기업 인수증가

美전력업계의 해외전력사들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 & A)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력산업 개편이후 전력요금 인하등으로 미국내에서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 및 호주 전력회사들과의 M & A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M & A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美센터럴 앤 사우스 웨스터가 영국의 시보드를 매입한 것으로 규모가 24억달러에 달했다.

서던컴퍼니의 영국 사우스 웨스턴 일렉트릭시티 매입도 18억달러 규모였다. 또 지난해 호주 빅토리아주가 실시한 전력회사 총 매각액 64억달러 중에서 미국기업의 매입액이 55억 달러에 달해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 및 호주 기업들에 대한 M & A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전력산업 경쟁도입 및 국영설비 매각 등으로 여건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 법률적 행정적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